

# 우유값 가져와요

대구침산국민학교  
교사 이 용 은

학교급식이 시작된지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지금하고 있는 학교 우유급식은 굳이 따져서 말한다면 완전한 급식이 아니고 아동들에 대한 할인판매를 학교에서 말아하는데 불과하다.

자세한 메카니즘은 잘 모르지만 유가공협회측에서 아동들에게 할인해 주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보조해 주고, 협회는 또 그 재원을 축산진흥자금에서 받는 식인 모양인데 이것을 심하게 따진다면 일부 우유를 학교에서 할인가로 사 마시는 아동들만이 보조금의 혜택을 입는 것이며 그밖의 아동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혹평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은 내가 교사가 아니고 또 급식을 담당하는 일선에서 있지않다면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을 문제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축산진흥 기금에서 나오는 보조금의 규모가 전국의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일정하게 우유를 공급할 만한 액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유를 마시고 싶은 학생들로부터 소비자 부담을 거두고 거기에 보조금을 합해서 급식하게 되는 사실이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어쩔수 없다고 여겨지고 그나마 시중보다 싼값으로 우유를 마시게 해주는 데 대하여 관계당국에 고맙다고 인사를 보내고 싶다.

그러저런 뒷 이야기는 접어 두고 내가 일선에서 우유급식과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을 적어 보기로 한다.

우유급식비는 대개 한달에 한번 거두게 된다. 그름에 거두기도하고 초승에 거두기도 하는데 각반의 담임이 아동들에게 우유를 마시고 싶은 사람은 학교에서 우유를 싸게 주니까 한달치 우유값을 가져오도록하여 2~3일간에 걸쳐 그 값을 모아다 급식담당 주무교사에게 내고 별도로 급식 신청자 명부를 만들어 한달간 급식하게 된다.

그런데 대체로 저학년층은 신청이 많고 고학년이 될수록 신청자가 적다. 또 이상한 현상은 신청자가 절반을 넘으면 신청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신청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아동들의 심리상에 어떤 경쟁심리와 주위의 추세에 따라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한 반에서 5명미만의 인원이 계속해서 신청하는 예는 매우 드물며 더욱이 한 반을 통털어 한 사람만이 급식을 받는 용기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편 늘 당하는 일이지만 급식 신청 아동의 수가 적으면 어쩐지 교사인 내마음이 무겁고 무슨 죄나 지은듯한 느낌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내일은 우유급식 대금을 거두는 날이니 우유를 마실 사람은 우유값을 가지고 와요」라고 일러 주며 칠판에다 크게 그 금액을 쓴다. 현재는 2,700원 정도이다.

이때 「예-」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크면 많은 호응이 있는 때문이며 그렇지 못하면 호응자가 적은 것이다.

한달에 2,700원의 급식우유 값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정이 어려운 아동은 「예」라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지금돈 2,700원을 못내는 아동이 있을 것이냐고 되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선의 교단에서 보면 의외로 이 정도의 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동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급식비를 거두는 일은 마음 한 구석에 우울한 찌꺼기가 남는다.

옷차림도 깨끗하고 영양상태가 매우 좋아 아 보이는 순철이는 매달 급식비도 제일 먼저 가져오지만 어딘지 차림새도 허술하고 영양상태도 좋지 않아 늘 파리한 모습을 하고 있는 팔순이는 일년내 한번도 급식을 받아 본 일이 없다.

그래서인지 순철이가 자랑스레 급식비를 내는 모습을 팔순이는 늘 부러운듯한 눈초리로 바라 보거나 아예 먼 산을 바라보면서 외면해 버리고 있다.

이런 광경을 주시해야하는 교사인 내 가슴이 착잡하지 않다면 아마 이상할 것이다.

그렇다고 팔순이를 불러서 “너는 왜 우유 급식비를 가져 오지 않니?” 라거나 “집에 가서 우유급식비 이야기를 했니?”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너무도 잔인한 행위가 될 것 같아 나는 한번도 물어 본 일이 없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어머니가 개가해 올때 함께 온 팔순이의 의복 아버지가 실직중이라 급식비같은 이야기는 꺼낼 형편도 못된다고 한다.

한 봉지의 우유가 교실에 남기는 아동심리의 파문은 매우 다양하게 굴절된 여운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 - 축소된 투영도 -

꼭 우유급식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역시 우유급식을 놓고 볼때도 사회상의 한 모퉁이가 투영되는 것 같아 복잡한 상념에 사로 잡히는 때가 여러번 있다.

그중의 몇가지만 간추려 보자.

인순이는 덩치가 작지만 푹푹하고 착하다. 그는 4학년이 되었고 몇달 지나자 꼭 한달 걸려 한번씩 급식을 신청하는 것을 알았다. 이상하다면 이상하고 별로 마음에 들것이 없다면 그만이다.

그런데 우연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순이의 남동생이 2학년에 있는데 그들 남매는 한달씩 교대로 우유를 급식 받는다고 한다.

즉 집에서는 두아이 몫의 급식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한사람 몫을 가지고 남매가 한달씩 교대로 우유급식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인순이네는 부모가 함께 포장마차를 경영하고 있으며 위로 중학에 다니는 인순이의 오빠가 있어 삼남매가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의 수입으로는 두아이의 급식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 당연하다.

그러던 중 인순이가 급식을 신청하지 않게 되었다. 이상하게 여겨 살며시 인순이를 불러 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물어 보았더니 「저는 우유 같은 것 안먹어도 돼요. 내 동생에게 계속하여 우유를 먹게 하기 위해 나는 안 먹기로 했어요」 라는 것이다.

그녀의 설명에 의하면, 자신은 밥도 잘 먹고 지극히 건강하지만 동생은 몸이 약하여 자주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의 건강을 도우기 위해 자신은 급식을 안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쉬는 시간에 우연히 복도에서 목격한 사실이다.

「누야! 이거 니 먹어 난 오늘은 먹기 싫어…」

「자숙아 너 먹어라고 안카더나 그건 머 할라고 가지고 왔어 퍼뜩 먹어.」

「아이다 누야는 아침도 안 먹고 왔잖아…」

「난 괜찮아 니나 먹어…」

어쩐지 가슴이 찡하는 장면이다. 그들 남매가 서로 먹으라고 사양하던 우유는 결국 동생이 먹었고 인순이는 내가 불러다 내뚫으로 두었던 우유를 주었다.

인순이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그날 아침 감기 기운이 있어 조반을 걸르고 그냥 학교에 왔더니 동생이 누이를 생각하여 제 몫의 우유를 받아 들고 4학년 교실로 찾아온 것이다. 인정미와 우애가 넘치는 한 일화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반에서 이상하게 얼굴색이 하얗게 허약해 보이는 문철이에게 나는 별 마음없이 한달치 급식비를 내어 주고 우유를 먹게 했다.

몇일 되어 한 젊은 어머니가 찾아왔다.

“우리 아이는 몸이 약하여 집에서 한약을 먹고 있는데 우유나 기름기가 있는 육류를 먹지 말라고 하여 급식비를 내지 않았을 뿐”이라며 자기 아이는 거지가 아니라고 역설한 다음 5천원짜리를 내 놓고 무시하지 말라는 투로 따지고 들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돌려 주고 다음날부터 그 우유는 인순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먹도록 했다. 비싼 한약으로 아들의 몸을 보호할 줄은 알고 우유와 육류를 먹이지 않는 부모도 부모이지만 그런 요상한 처방을 내리는 한약국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무엇이 무섭다고 해도 “무지”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격언이 생각난다.

그런 일이 있는지 한참 지나서다.

중년의 아낙네가 찾아 왔다. 인순이의 어머니란다. 자기네 인순이에게 우유급식까지 주어서 고맙기짝이 없다며 포장마차에서 파는 것이라며 따끈한 기가 미쳐 식지 않은 빈대떡을 세조각 싸들고 왔다.

동료교사들과 그 빈대떡을 맛있게 나누어 먹은 덕에 나는 그해 일년 내내 인순이에게 급식비를 대어 주었고 그 인순이는 지금 졸업하여 공장으로 갔다.

## - 우리는 언제나 -

한참 되었지만 텔레비전에서 일본의 국민 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장면이 방영된 적이 있다. 참고로 일본의 제도를 보면 중학까지 9년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 급식비는 지방자치 단체 소관이어서 우리로 치면 시·읍·면 의회에서 예산이 정해지고 시·읍·면 예산에서 급식비가 지출된다고 한다.

그래서 시읍면 의회와 행정당국은 서로 견

제하고 협력하여 자신들의 자녀에게 보다 실비로 보다 좋은 급식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급식비는 지방세 가운데 포함되어 지방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알뜰한 급식이 이루어진다고 전한다.

우리는 지금 교육세라는 기한부 특별 목적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담배나 술등 일부 재화와 거래에 가해지는 이 세금은 그것을 재원으로 학교의 증축이나 시설 확충등에 쓰이는 것인데 기왕에 특별 목적세로 하려면 방위세와 비슷하게 하여 콩나물 교실의 해소와 이를 통한 미입용 교사의 임용은 물론 학교 급식을 우유값의 일부 보조가 아닌 전량 급식으로까지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

물론 국방이야말로 직접적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요긴한 수단이지만 교육은 좀 간접적이기는 해도 국방과 우열을 다룰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20여년간의 경제개발이 그동안 축적해온 교육의 결과라고 흔히 말하거나 내일의 일꾼을 기르는데 몇푼 안되는 우유값 보조를 놓고 어린 가슴에 온갖 희비가 엇갈리게 하기 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우유 한봉지 거기에서 얻어지는 영양가의 양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놓고 학교내에서 묘한 뉘앙스가 빚어지는 것은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일률적으로만 다룰 수 없다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급식이나마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하여 없는것 보다는 나은 것이고 될수만 있다면 이 급식이 좀더 실효있게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튼튼한 나는 우유대장!”

강 미경 성호 국민학교 6학년 7반

오늘도 힘찬 하루가 시작 되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로 눈부시게 반사되는 신록의 계절에 푸르른 수목을 보노라면, 더욱 알찬 하루를 꿈꾸게 합니다. 이렇게 상쾌한 아침을, 저는 신선하고 영양 많은 우유 한잔으로 시작 합니다. 우유한잔은 우리 모든 식구의 공복된 상태를 힘차게 채워주는 고마운 영양식품이죠.

저희집이 이렇게 우유를 좋아하고, 우유의 진가를 깊이 알고, 나아가서는 이웃에게도 권장할 수 있으리 만큼 우유의 좋은점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듯 우유에 대해 깊은 공정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체험에서 얻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제가 4학년때부터 했답니다. 처음엔 우유가 비위에 맞지 않아, 엄마의 성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다과에만 눈독을 들였답니다. 그런데, 제 바로 윗 언니인 고등학생 언니는 이상하리 만큼이나, 우유를 하루에 200ml 3봉은 먹어 치운답니다. 언니는 우리가 가게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학교에서 항상 우유를 신청하여 먹었다나요? 저희 언니는 고등학생 보다 무척 키가 작답니다. 언니 말로는 우유를 장기간 복용하면 반드시 졸업할때면 멋진 숙녀가 될 수 있을 만큼 키가 클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엄마와 언니들이 우유를 신나게 권장할 때, 불연듯 건강상식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유란, 식생활에서 부족되기 쉬운 칼슘, 인, 철분 그리고 각종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는 자연이 준, 완벽한 건강식품이며,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와 성장 발육을 촉진시켜 주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좋은 알카리성 식품이라나요? 더군다나, 우유에 들어있는 가락토스는 두뇌의 발달을 촉진시켜 주며, 특히 비타민A와 비타민 B<sub>2</sub>의 함량이 많아 잔주름 방지와 피부의 탄력을 윤택하게 해준대요.

저는 우유가 이렇듯 많은 영양소와 요술과 같

은 거대한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와같은 우유에 대한 깊은 지식을 머리에 담고, 우유를 대하니 너무나도 우유가 좋아 보였고, 그래서 한잔을 마시니 너무나도 상쾌하고, 힘이 저절로 솟구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우유를 마시며, 그런일이 있고 난 지금의 2년후의 나와 성장은 반드시 우유의 덕이 컸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만 서고, 맨 앞줄에만 앉았던 지난, 1, 2, 3학년은 꿈으로 사라지고, 우유를 먹었던 4, 5학년 때와 지금의 6학년, 2년 사이에 저는, 네번째에서 늘씬한 키와, 순발력, 조정력 지구력 등이 완벽한 체육을 좋아하고, 잘하는 튼튼한 우유대장이 되었답니다.

아침마다 가게에 새로운 우유가 배달되면 아빠 부터 막내인 저까지 여섯 식구가 우유를 한봉씩 마셔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본이 듭니다. 가게에 손님들이 우유를 많이 찾으시고, 아주머니들도 꼬마들에게 다른 군것질 대신 우유 한봉씩 사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도 우유의 보급이 잘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유를 먹고 자라는 나와 같은 어린이들은 항상 명랑하고, 지혜롭고, 튼튼한 건강을 유지 할 것이라는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고 싶습니다. 껏소에게 그리고 위대한 자연에게! ..... 또 우유를 초고온 순간살균 방법으로 처리하여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맛을 전해 주시는 우유 가공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일거양득인 우유를 많이 먹고, 주위에 자신있게 권장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모든 식구들과 우유로 이야기 꽃을 피우며 한잔속에 들어있는 갖가지 보물스러운 영양을 몸 깊숙히 담아 더욱 튼튼하고, 건강한 우유대장이 되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유대장의 역할을 책임있게 다 하겠습니다.